

‘같다’ 추측문의 남용과 글쓰기 교육

임 형 모 (한성대)

< 목 차 >

- | | |
|------------------------------|------------------------|
| 1. 서론: 판단 보류 및 중지의 글쓰기
경향 | 3. ‘같다’ 추측문의 글쓰기 지도 방안 |
| 2. 글쓰기 현장과 ‘같다’ 추측문의 남용 | 4. ‘(라고) 생각한다’ 구문의 문제 |
| | 5. 결론: 고민하는 주체를 위한 제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추측’의 ‘같다’ 구문을 남용하는 글쓰기 경향을 바로잡고 고민하는 글쓰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동적이며 방관자적이고 스스로가 내려야 할 판단을 유보하는 글쓰기 경향으로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같다’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추측문이다. 학생들은 글쓰기이든 말하기이든 이 표현을 남용함으로써 스스로가 내린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추측은 어떤 명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판단은 온데간데없이 추측만 함으로써 스스로가 내린 결정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글쓰기 경향은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세 단계에 걸친 순차적인 교수법을 제시했다. 1)추측문은 보충어에 ‘와’가 올 수 없는 문법적 성질이 있다는 것과, 2)판단의 논항이 부재(不在)한다는 것, 그리고 3)의미적 측면에서 ‘참’의 의미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교수법을 개발함으로써 고민하는 능동적 주체화(主體化)를 가능케

하는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했다.

주제어 : 같다, 추측, 라고 생각한다, 글쓰기, 글쓰기 교육, 교수법,
깊은 사고

1. 서론 : 판단 보류 및 중지의 글쓰기 경향

상당수의 교육이 그렇겠지만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만큼 지난한 일도 없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성과를 기대하지만 학습자의 변화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글쓰기 교육은 대개 한 학기 정도 이루어지는 것¹⁾이 일반적이어서 대략 4개월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몰라보게 신장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시간적 제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글쓰기 교육은 한편으로는 형식적 측면에 머물고 마는 파행적 교육이 되는 경우도 많다.²⁾ 일정 기간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교수자는 그

- 1) 본고는 대학생들의 판단 중지형 글쓰기 경향을 파악하고 지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수업 사례를 분석 및 연구 대상으로 했다. 수도권의 1개 대학과 지방권 1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자의 경우는 기초 글쓰기로서 1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한성대의 <사고와 표현I> 교과목이며 후자는 심화 글쓰기의 일환으로 2학년을 대상으로 3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군산대의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이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과목은 기초 및 심화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 또한 안배를 했다.
- 2)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에서 형식적 측면인 올바른 문장, 글의 조직, 인용법, 연구윤리 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형식을 강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학습자는 물론이고 교수자도 찝찝함이 남는 글쓰기 교육이 되고 만다. 여기에는 수강인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교수자가 충분히 자신의

이상의 공을 들여야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습자가 보여 주는 능동적 변화라면 스스로 고민하는 주체로 변모하는 모습일 터인데, 현재 대학생들을 지도하며 맞닥뜨리는 고민 중에서 연구자가 판단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 주체이며 더불어 그러한 주체와 만났을 때 취해야 할 교수자의 교수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수동적 혹은 방관적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한 것인지를 고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글쓰기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발생하는 문제적 현상을 인지하고 이를 올바른 교육적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선행해야 할 글쓰기 교육의 지향점일 것이다. 다양한 영상 매체 속에서 성장해 온 환경 때문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일보다 보여지는 대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고민 속에서 진정 ‘참글’³⁾이 나온다고 강한 어조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봐도 이것을 실제로 글쓰기를 수행하는 데에 곧바로 적용하는 학습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교수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동적이며 방관자적이고 스스로가 내려야 할 판단을 유보하는 글쓰기 경향으로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추측문이다. 연구자가 이를 바로잡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글쓰기이든 말하기이든 이 표현을 남용함으로써 스스로가 내린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엄연히 추측을 하려면 어떤 명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판단은 온데간데 없이 추측만 함으로써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글을 검토해 주지 않았다는 서운한 감정이 남으며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일일이 학습자의 글을 총체적으로 읽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교수자는 형식적 측면이라도 잡아 주자는 차원의 교육으로 대리 만족에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다.

- 3) ‘참글’은 북한어로서, ‘진짜로 훌륭한 글’이라는 뜻이다(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북한어이기는 하지만 공식 학술 용어로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은 하등 없다고 본다. 순수 고유어로서 이만한 의미를 담아내는 낱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들의 글쓰기 경향에 문제의식을 지녀 왔던 바, 이러한 대학생들의 글쓰기 경향은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이었다.⁴⁾ 따라서 잘못된 글쓰기의 경향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고민하는 글쓰기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글쓰기 지도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자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르면 될 일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가슴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수법을 고안한 최초의 접근이 될 것이다.

2. 글쓰기 현장과 ‘같다’ 추측문의 남용

대학생 글쓰기에서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는 형태의 글쓰기는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 자신의 신상을 주제로 하는 묘사 및 서사적 글쓰기에서부터 논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글쓰기만이 아니라 말하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 확신을 결여한 글쓰기와 말하기는 사고의 확장을 바라는 교수자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 버리는 학습의 중단을 초래하거나 더불어 교수자가 해당 수업 방식을 보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글을 함께 읽고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대개 ‘잘 쓴 거 같아요’ 라는 표현이 일반이고 ‘멋진 거 같아요’나 ‘좋은 거 같아요’ 등의 진심인지도 알 수 없는 소회를 피력하며 성의 없는 감상 정도를 보이기 일쑤다. 이러한 평기는 평가지를 주고 작성해 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은

4)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를 해 둘 것이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교수법을 고안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험하는 차원에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아님을 밝혀 둔다.

데, 그나마 이런 표현이라도 알아서 얘기해 주면 다행이고 자신의 글을 평가 받는 차례만 끝나고 나면 타인의 글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내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이다.⁵⁾

이러한 현상은 좋게 말하면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 즉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본인의 마음도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 즉 자기 보호 내지 자기 방어로써 이기심에서 비롯하는 중층적 심리에서 기인한다.

부연하자면, 그러한 중층적 심리에 따라 대표성을 띠고 나타나는 구문이 ‘같다’의 추측문이다. 대학생이자 성인이 되어서도 말하기뿐만 아니라 글쓰기에서도 이 표현을 선호하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인데, 기술한 내용이나 발화한 내용 중에서 굳이 확인이라는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기술한 필요는 없다는 방관자적 태도, 즉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함으로써 ‘아니면 말고’식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혹은 무의식)이 이러한 구문의 사용을 부추기며 고민하지 않는 글쓰기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같다’ 구문은 화자나 필자가 의미상 주어가 되어 주관적 판

5) 교수자는 학생들의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를 차단해야 한다. 자신의 것만을 챙기는 학생들의 이기적 성향을 타파하고 학생들을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서 모든 글은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후에 발표자의 글을 독자의 입장에서 꼼꼼히 읽고 평가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사전에 반드시 갖는다. 글쓰기 교육에 서 소통이 없다면 안 하지만 못하기 때문이다.

6) 글을 쓰는 행위는 본인 스스로가 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억압을 일으키는 것이 불안이지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억압은 아(Sigmund Freud, 황보석 옮김,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7, 244쪽)”인데, 그 결과 “불안은 위협 상황에 대한 반응이며, 자아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 상황에서 물러나기 위해 어떤 일을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된다. 불안이 생겨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증상이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그보다는 불안이 생겨남으로써 나타나는 위협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증상이 형성된다고 말하는(위의 책, 268쪽)”데, 여기에 따르면 학생들이 보이는 추측문은 사회적 불안에 저항함으로써 거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 읽힌다.

단을 나타내는 문법적 특성이 있으며, 겸양 표현으로서 화행의 강도를 약화시켜 상대방에게 부담을 완화해 주는 간접화행으로 바뀌는⁷⁾ 특징이 분명 있으나, 대학생들이 수행하는 글쓰기에서는 판단의 보류나 증지는 물론이고 겸양 표현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논의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자가 평소 수업 시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같다’항을 살펴보겠다.⁸⁾

[1]【(…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 <여하다. ♣ 나는 그와 키가 같다. / 우리는 고향이 서로 같다.

[2]【…과】(‘…과’ 성분은 주로 ‘과’가 생략된 단독형으로 쓰인다)

①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 ♣ 마음이 비단 같다.

②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여))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신혼여행은 으레 제주도나 설악산 같은 곳에 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있다.

[3] ((선행 명사는 단독형으로만 쓰인다))

① ((‘같으면’ 꼴로 쓰여)) ‘-라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맑은 날 같은 면 남산이 (하락)

② ((‘같은’ 꼴로 동일 명사 사이에 쓰여)) ‘기준에 합당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는 군인 같은 군인이다.

③ ((‘같아서(는)’ 꼴로 ‘마음’, ‘생각’ 따위의 명사 뒤에 쓰여))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 마음 같아서는 물에 뛰어들고 싶은데.

④ ((‘같아서’는’ 꼴로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그 시

7) 김해연,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와 언어학』 5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11, 36~46쪽 참조.

8) 문장의 예는 하나나 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했다. 밑줄 및 생략 그리고 강조는 연구자가 임의로 했다.

간에 벌어진 일이나 상황 따위가 계속된다면'의 뜻으로 쓰여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 요즘 같이서는 살맛이 안 난다.

「5」 (('같이(라고)' 꼴로 욕하는 말 뒤에 쓰여)) 혼잣말로 남을 욕할 때, 그 말과 다름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날강도 같이라고.

「4」 (('ㄴ/는 것', 'ㄹ/을 것' 뒤에 쓰여))

추측,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

¶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 / 비가 올 것 같다.

‘같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두 개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1]의 ‘나는 그와 키가 같다’와 ‘우리는 고향이 서로 같다’는 ‘나와 그’ 그리고 ‘우리(나와 너)’라는 A와 B의 비교 대상이 있고 ‘같다’의 의미도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뜻으로 동일하다. [2]의 경우에 ‘마음이 비단 같다’와 ‘신혼여행은 으레 제주도나 설악산 같은 곳에 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있다’에서는 [1]에서처럼 두 대상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A를 B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1]을 ‘비교’의 ‘같다’라고 하면 [2]는 ‘빗땀’의 ‘같다’⁹⁾라고 부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빗땀’과 달리 ‘비교’의 의미로 쓰일 때는 “보충어와 ‘같다’ 사이에 ‘같다’의 수식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어로는 ‘다르다’를 가진다”¹⁰⁾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1]의 ‘나는 그와 키가 같다’에서 보충어인 ‘키가’와 ‘같다’ 사이에는 ‘같다’의 수식어가 올 수 있으며 반의어로는 ‘다르다’가 된다. 반면에 [2]의 ‘마음이 비단 같다’에서 ‘같다’에는 수식어가 올 수 없고 ‘다르다’가 반의어가 될 수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3] 또한 [2]에 포함이 된다. 차이가 어떠한 중요한 것은 실제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터, 부연하자면 [1]~[3]까지는 학생들이 글쓰

9) 김창섭은 ‘같다’ 구문을 분류하면서 ‘비교’의 ‘같다’, ‘빗땀’의 ‘같다’, ‘추측’의 ‘같다’를 ‘같다’의 기본 구문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은 ‘같다’ 구문을 분석한 매우 정직한 국어학 연구로서 본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 김창섭, 「같다’의 의미와 기본 구문」, 『진단학보』 116호, 진단학회, 2012, 219~220쪽.

10) 위의 글, 221쪽.

기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거의 없다.

대학생의 글쓰기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4]의 경우인데, [4]는 앞서 살펴본 내용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도 그렇고 ‘비가 올 것 같다’도 그러한데 ‘비교’의 ‘같다’나 ‘빗땀’의 ‘같다’와는 다르게 앞서 고찰한 A와 B의 두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대상이 부재하니 당연히 ‘같다’의 의미는 비교나 빗땀이 되지 못하고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추측’의 ‘같다’¹¹⁾라고 부를 수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그 당연함 때문에 추측문을 남발하게 되는 글쓰기 경향이 만들어지며 그것은 고질이 되어 글쓰기는 물론 말하기에서도 자기 확신을 결여한 주체를 양산하고 만다. 특히 ‘심지어 확실한 사실인데도 ‘것 같다’ 구문으로 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¹²⁾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대학생들이 수행한 글쓰기에서 ‘추측’의 ‘같다’를 남용한 사례이다.¹³⁾

<1> 발표란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으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반드시 하게 되는 ①것 같다. 초등학교 때 교탁으로 나가 친구들을 앞에 두고 발표종이에만 눈을 두고 하는 발표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 발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두 외우고 전교생을 앞에 두고 하는 발표까지 할 수 있는 발표는 모두 했던 ②것 같다. 여태 해오던 발표들은 대부분 개인 발표였던 ③것 같다. 성격이 게으른 점이 있어서 쫓기는 느낌으로 꼭 디데이 전날 밤을 불태우며 발표를 준비 했다. …… 중략 …… 반면에 가끔 조를 구성해서 발표를 준비할 때 개인 발표와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 했던 ④것 같다. …… 중략 ……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개인이 발표를 준비하는 것

11) 위의 글, 220쪽.

12) 이근용, 『‘같다’의 통사와 의미』, 『어문학논총』 제26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7, 119쪽. / 이근용은 그러한 경향이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은데, 여자가 남자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근거로써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13) 제시한 사례들은 한성대의 <사고와 표현I>과 군산대의 <창의적 글쓰기>의 수업 사례들이다. 편의상 한성대는 ‘H’로 표기하고 군산대는 ‘G’로 표기하겠다. 첨삭할 내용이 많으나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일절 수정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보다 더욱 빨랐고, 무엇보다 조장을 맡았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맡은 바가 충실하고 닦달같이 북아서 집중할 수 있었던 ⑤것 같다.
…… 중략 …… 달리 생각하면 개인 발표는 실수했을 때 자책하고 개인 점수가 깎이는 걸로 끝나지만, 조별 발표는 개인의 실수로 조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⑥것 같다. …… 하략 ……

- A학생 글(발표문)

<2>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은 잘 담긴 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교 와 대조라는 주제에 비해서 그런 표현은 적었던 ②것 같습니다.

- B학생 글(평가문)

<1>과 <2>의 사례는 수도권 H대학의 기초 글쓰기 수업의 일환인 <사고와 표현> 수업에서 나타난 결과이다.¹⁴⁾ 위의 사례 말고도 다수의 비슷한 결과들은 정말 많이 접할 수가 있다.

<1>은 ‘비교와 대조’를 주제로 한 편의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는 과제인데 ‘개인 발표와 조별 발표’를 주제로 비교 및 대조를 하며 불과 19줄을 기술한 내용에서 ‘~것 같다’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등장한다. 빈도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문제는 이 표현들이 적절한 표현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생겨난다. 위에서 ‘같다’ 구문을 사용한 부분은 모두 개인적 차원의 경험을 토로하는 표현들로서 ‘~이다’라고 기술하면 의미도 분명해지고 전달력도 높아지나 그렇게 기술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단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반론의 여지와 상호(필자와 독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의 조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통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4) 한성대의 <사고와 표현> 교과목은 글쓰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고와 표현 II>는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재는 묘사와 서사, 정의, 인과 등의 설명 방식을 개별적인 글쓰기 패턴으로 보고 개별 패턴을 활용하여 글쓰기 연습을 해 봄으로써 다른 글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 강의이다.

<2>는 <1>의 글을 읽고 평가한 평가문이다. 두어 줄의 아주 짧은 평가이지만 여기에서도 두 번의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사실 발표문보다도 이러한 평가문이 더 문제인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나 스스로 경어체를 선택해서 기술을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②에서처럼 발표문에서 부족한 내용을 언급하는 평가에서조차 구체적인 설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라고만 기술함으로써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만다. 발표자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나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함으로써 기실 평가자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에 다르다. 이것이 현재 대학생들이 수행하는 글쓰기의 현주소인데, 그렇다면 지방권의 G대학에서 이루어졌던 <창의적 글쓰기>의 경우를 보자.

<3> 이 말에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경계선을 긋는 않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①것 같았고, 영화 부분에서 미국인들은 중략 글쓴이는 미국과 일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일본의 문화나 생각을 마냥 좋게 보진 않구나, 이런 점이 별로고 맘에 들지 않는구나라를 보여주는 글로 느끼게 써 내려갔던 ②거 같다. 중략 이번 텍스트를 읽으면서 일본 문화와, 성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글을 모두 좋게 읽진 못 했던 ③거 같다. 남자들이 게이샤나 창부와 즐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내가 밤에 놀러 나가는 남편의 옷차림을 도와주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내가 도와주는 것에 의아했다. 하략

- C학생 글(발표문)

<4> 글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쓰신 ①것 같습니다. 단어에 대한 각주가 사용되었으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②것 같고,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할 ③것 같습니다.

- D학생 글(평가문)

<3>과 <4>의 사례는 지방권의 G대학에서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글쓰기 수업의 일환인 <창의적 글쓰기> 수업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심화 글

쓰기인 만큼 지정 텍스트를 읽고 에세이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교과목이다.

<3>은 <국화 칼>(Ruth Benedict)을 읽고 작성한 글이다. ‘~것 같다’ 구문을 사용한 부분을 보면 공통적으로 개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텍스트를 읽기는 했으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이해한 내용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①을 ‘것이고’로 ②는 ‘것이다’로 그리고 ③ 또한 ‘것이다’로 표현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게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잠재우고 있다. 앞서 살폈던 <1>에서 수행한 글쓰기와 차이가 있다면 읽기 텍스트의 존재 여부인데, 후자의 경우는 전체적인 글쓰기 수행 결과를 봤을 때 ‘같다’ 추측문을 남용하는 경우가 <1>보다는 덜했는데, 그것은 정해진 텍스트를 읽고 판단을 해야 하는 고민의 몫이 주어진 결과로 보인다.¹⁵⁾

<4>는 <3>을 수행한 학생의 글을 읽고 평가한 평가문이다. 평가를 하려면 평가자 또한 해당 텍스트를 읽어야 온전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4>의 평가문은 일절 내용적 검토는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를 읽지 않고 평가한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짧은 평가 속에 세 번이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논의의 확장을 차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같다’ 구문의 추측만 함으로써 그 이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추측’의 ‘같다’를 남용하는 모습은 현재 대학생들의 글쓰기는 물론이고 말하기에서도 범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확산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대중매체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기 확신을 결여한 글쓰기 습관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15) 여기에서 나타나는 글쓰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에는 학년도 고려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3. ‘같다’ 추측문의 글쓰기 지도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다’ 추측문을 남용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함으로써 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자기 확신을 결여한 글쓰기나 말하기로 이어진 결과 소통의 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보다 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글쓰기의 소명을 가로막는 근원적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같다’ 추측문의 남용을 줄이고 소통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교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한 대로 대략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같다’ 추측문을 지양하며 고민하는 글쓰기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보충어에 ‘와’가 올 수 없는 문법적 성질

교수자가 ‘같다’ 추측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은 분명하다. 학습자의 글에서 그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에서부터인데, 이를 발견하면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라고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같다’ 추측문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확인하지 않은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만 공을 들이면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추측문을 남발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본래 ‘같다’ 추측문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용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비교 구문에서 쓰였던 ‘같-’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 나아가 정중어법의 하나인 양태적 기능을 하는 용법까지 파생”¹⁶⁾되었다는 것이다. 좋게 말해서 정중어법이지 실제 글쓰기 및 말하기를 수행할 때

16) 안주호, 「국어학: 용언 “같-” 구문의 공시성과 통시성」, 『새국어교육』 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463쪽.

나타나는 추측문은 검양 표현¹⁷⁾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백분 검양 표현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측문을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일반인 학생들에게 추측문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추측문이 지닌 문제점을 명쾌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비교(혹은 빗댐)’의 ‘같다’와 ‘추측’의 ‘같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추측문이 분명하다면 “보충어에 ‘와’가 올 수 없¹⁸⁾”다. 『표준국어대사전』과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예시로 들어 보겠다.¹⁹⁾

<5> 마음이 비단(과) 같다.

- 『표준국어대사전』 [2]-「1」

<6> 할 수 있는 발표는 모두 했었던 것(과) 같다.

- A학생 글 <1>-②

<5>는 ‘빗댐’의 ‘같다’이다. 이 경우에 보충어인 ‘비단’에는 ‘와’가 올 수 있다. ‘비단과’가 될 수 있는데, ‘와’가 온다고 해서 의미가 변하지는 않는다. <6>의 보충어 ‘것’에는 ‘것과’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같다’는 ‘동일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것은 본래 의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이 된다.

이처럼 추측문이 비교를 허(許)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설명이 가능한 ‘비교’나 ‘빗댐’의 ‘같다’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추측’의 ‘같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²⁰⁾”를 제외하

17) 김해연은 ‘-는 것 같다’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완화시켜 공손성을 확보하는 방법임을 논의하고 있다. / 김해연, 앞의 글, 44~46쪽 참조.

18) 김창섭, 앞의 글, 220쪽.

19) 문장의 중간에 넣은 ‘와’는 연구자가 임의로 했다.

20) 김해연, 앞의 글, 43쪽.

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검양으로 만족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 줘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단힌 추측을 제외한 열린 추측에는 추측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이다.²¹⁾

2) 부재(不在)하는 판단의 논항 마련

1)에서 추측문이 지닌 성질을 주지시킨 후라면 2)는 추측문을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교수하는 단계이다.

2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대로 ‘같다’ 추측문에서는 A와 B라는 두 가지의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로 된 논항이 하나 등장할 뿐이다.”²²⁾ 2장의 『표준국어대사전』과 학생이 작성한 글에서 예를 들어 보겠다.

<7> 비가 올 것 같다.

- 『표준국어대사전』 [4]

<8> 글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 D학생 글 <4>-①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7>과 같이 ‘비가 올 것 같다’라고만 기술해 버리면 독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유는 간단하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것 같다’ 부분을 명쾌하게 기술하기 어렵다면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추측문도 판단을 전제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절로 된 명제를 근거로 마련하면 될 일이다. 예를 들어 ‘하늘이 흐린 것을 보니 비가 올 것 같다’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추측문의 ‘같다’는 원칙적으로 대칭 동사일 수 없다.”²³⁾ ‘같

21) 본 연구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의 추측문을 ‘단힌 추측’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추측문을 ‘열린 추측’으로 명명해 보고자한다.

22) 김창섭, 앞의 글, 231쪽.

23) 위의 글, 236쪽.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같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창섭은 국어에는 표지되지 않는 보충어(격조사를 가지지 않은 보충어)에 직접 결합하는 명사, 부사, 동사(형용사 포함)들이 있으며, 이들을 부접어(附

다'의 반의어는 '다르다'인데, '비교(혹은 빗댄)'의 '같다'는 대칭으로서 '다르다'를 반의어로 한다. <8>에서 글을 쓴 주체는 발표자이고 '같다'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평가자이다. 평가자의 느낌이나 판단이 '추측'의 '같다'가 되는 것이기에 단힌 추측으로 두지 말고 추측의 근거가 되는 절을 구체화하든지 아니면 표현 자체를 지양하라고 일러야 하는 것이다. <8>을 예로 들자면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일본 문화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추측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글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쓰셨습니다'와 같이 '같다' 구문 자체를 지양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추측'의 '같다' 구문에 부재(不在)하는 판단의 논항을 마련함으로써 '추측'의 '같다'를 쓸 여지 자체를 차단할 수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다음의 3)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다.

3) '참'의 의미로 수렴되는 '같다'

2)에서 '추측'의 '같다' 구문을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부재하는 판단의 논항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같다' 구문을 사용할 여지 자체를 가능하다면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측'의 '같다' 구문의 의미를 따져 봐야 한다. 하나의 논제밖에 없고 '아마 그러리라'는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 '같다'의 의미는 '참'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예처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9>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

- 『표준국어대사전』 [4]

비가 올 것 같다.

- 『표준국어대사전』 [4]

接語)라고 했을 때, 부접어가 만드는 [보충어+부접어]를 부접 구성이라 명명하고, 부접어는 보충어와 결합해서야 최초의 구가 되어 구 밖의 요소와 통사론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부접 동사의 예로 '이다', '답다', '같다', '시작하다'를 들고 있다(위의 글, 218쪽 참조).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여태 해오던 발표들은 대부분 개인 발표였던 것 같다.

- A학생 글 <1>-③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잘 담긴 것 같다

- B학생 글 <2>-①

글을 모두 좋게 읽진 못 했던 거 같다.

- C학생 글 <3>-③

떠어쓰기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D학생 글 <4>-③

<10>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무슨 사고가 난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여태 해오던 발표들은 대부분 개인 발표였던 것이다. → 발표였다.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잘 담긴 것이다. → 답았다.

글을 모두 좋게 읽진 못 했던 것이다. → 못했다.

떠어쓰기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같다’의 의미가 ‘참’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같다’를 서술격 조사 ‘이다’로 수정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하여 단정적 의미가 되게 글을 쓰라고 하고 이후에 의견이 다른 친구들과 재논의하는 조우의 과정 속에서 사고의 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확실한 참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10>의 ‘발표였다’, ‘답았다’, ‘못했다’와 같이 분명한 자기 판단의 표현으로 바꾸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3단계의 교수 과정은 학생들의 자기 확신을 결여한 글쓰기를 올바른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²⁴⁾

24) 연구자가 이 과정을 교수한 이후 학생들의 글쓰기 및 수업 태도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을 접한 교·강사 선생님들께서도 실제 수업에서 응용해 보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4. ‘(라고) 생각한다’ 구문의 문제

4장은 ‘추측’의 ‘같다’ 구문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실제 수업을 진행할 시에 맞닥뜨리는 재밌는 지점이다.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가급적 ‘~같다’라는 표현을 지양하라고 하면 그 다음 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11>, <12>와 같다. 다수의 학생들이 ‘~라고 생각한다’ 구문으로 글을 작성해서 오는데, 독특하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11> 내가 생각하는 작은 영웅들은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 하나를 주는 사람, 유기견을 키우는 사람,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 웃음을 나눠주는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행동들로 스스로 영웅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저런 도움 하나가, 따뜻한 마음이 모든 사람의 세상을 통째로 따뜻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받는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세상에서만큼은 큰 영웅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이 느낀 행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고, 언젠간 한 사람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웅들은 지혜와 재능을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 아닌 작은 것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도 작은 행동이지만,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올 작은 영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E학생 글(발표문)

<12> 일단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걸모습만 성장 되었지 부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다**. …… 중략 …… 조건을 동거하는 커플에게 월세 보조금으로 30~40%정도 정부에서 부담하고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낳는다면 아파트 전세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마련한다면 부담 없이 아이도 낳고 동거와 결혼의 연령도 낮아 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결혼 할 때 제일 부담되는 비용이 주거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빠른 시일에 **해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만 학점이 3.0이상 넘겨야 되고 부모님의 소득으로 소득분위를 판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 중략 …… 등록금 해결을 위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대학교에서 마일리지 같은 장학금 제도가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마일리지 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봉사활동 시간으로 시간당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경험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실업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최대한 없애고 정규직을 최대한 늘리는 것부터 **해결되어야 생각하고,** 사람 한 명당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그 시간만 딱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람과 교대로 일하는 2중교대가 **이루어져야 생각한다.**

- F학생 글(발표문)

<11>은 H대학에서 ‘정의’를 패턴으로 하여 ‘영웅’을 주제로 수행한 에세이이며, <12>는 <88만 원 세대>(우석훈·박권일)를 읽고 작성한 글이다. ‘같다’ 구문의 사용을 지양하라고 주문을 하자 돌아온 결과는 ‘같다’라고 썼을 자리에 모두 ‘생각한다’로 표현하여 기술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같다’를 대체할 수 있는 낱말로 ‘생각한다’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같다’보다는 강하지만 여전히 단정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하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이 또한 ‘추측’의 ‘같다’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고민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5. 결론 : 고민하는 주체를 위한 제언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어느 정도 글로 옮기는 일이 용이해지면 그 다음에는 작은 디테일이 글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금까지 자기 확신을 결여한 글쓰기

의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수법을 고민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누구나 꾸준한 연습으로 일정 정도의 수준 있는 글쓰기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최적의 길은 스스로 고민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접는 것이 좋겠다.

대학은 글쓰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²⁵⁾ 오로지 쓰게 하고 첨삭 지도를 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고전적 방식의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오히려 과감하게 고전적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쓰고-말하는’ 수업으로 가야 한다.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소통에 방점을 찍으며 함께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학교마다 마련된 두꺼운 교재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텍스트 전체를 읽고 글을 쓰도록 해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기 확신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첨삭 지도 또한 변해야 한다. 글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수행한 글쓰기의 오류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글을 수정토록 하는 능동적 주체화(主體化)를 위한 지도 방식에는 첨삭 지도가 으뜸이나 현재 교수자가 해 주는 첨삭 지도는 학생들을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교수자는 “피전달자인 학습자가 탐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필요한 ‘간접적 계기’를 제공하는 첨삭 지도”²⁶⁾ 방식을 고민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오류를 찾고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자동화와 그에 따른 노동 대체 현상을 걱정하는 4차 산업혁명

25) 점차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영상 세대에 속한다. 초등이나 중등 교육에서 교과서가 전자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등교육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학 교육이 고개인 학생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내지 못하고 곁돌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26) 임형모,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안: ‘밑줄 탐구 첨삭’의 이론과 실제」,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 460쪽.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관심이 세분화되고
과편적이며 일시적인 인간관계로 변해 가는 사회적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Richard Watson의 말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깊은 사고
(deep thinking)²⁷⁾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는 ‘깊은 사
고를 할 수 있는 고민하는 주체’에 방점이 놓여야 한다.

27) Richard Watson, 이진원 옮김, 「스크린 문화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퓨처 마인드: 디지털 문화와 함께 진화하는 생각의 미래』, 청림출판, 2011, 13쪽.

참고문헌

- 김광민, 「교과교육과 간접전달」, 『도덕교육연구』 제22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11.
- 김창섭, 「'같다'의 의미와 기본 구문」, 『진단학보』 116호, 진단학회, 2012.
- 김해연,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와 언어학』 5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11.
- 남윤진·한영균, 「'같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제4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1992.
- 안윤미, 「'같다'의 사용 양상 연구: 구어와 문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어미학』 41호, 한국어어미학회, 2013.
- 안주호, 「국어학: 용언 “같-” 구문의 공시성과 통시성」, 『새국어교육』 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 이근용, 「'같다'의 통사와 의미」, 『어문학논총』 제26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7.
- 이성하, 「객관화와 주관화의 교차현상에 대하여: 한국어의 “같다”, “싫다”, “보다”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3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05.
- 이은자, 「교사 첨삭 피드백의 원리와 방법」, 『작문연구』 제9호, 한국작문학회, 2009.
- 이한규, 「'-것 같-'의 화용의미」, 『텍스트언어학』 10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 임형모,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안: '밑줄 탐구 첨삭'의 이론과 실제」,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
- Freud, Sigmund., 황보석 옮김,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7.
- Manheimer, Ronald J., 이홍구·임병덕 역, 『키에르케고르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2004.

Watson, Richard., 이진원 옮김, 「스크린 문화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퓨처 마인드: 디지털 문화와 함께 진화하는 생각의 미래』, 청림출판, 201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7-1학기 군산대학교 <창의적 글쓰기>(3학점, 3시간) 및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I>(2학점, 2시간) 수업 자료.

【Abstracts】

Abuse of the ‘gatta(kathta)’ and the Education of Academic Writing

Im Hyeong-mo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rrect the expression of guessing which is an abuse of ‘gatta(to be same)’ and to find a teaching method.

These days, university students abuse the expression of guessing. ‘Gatta(to be same)’ may be the best example of this. This description is a passive sense from the sidelines. In other words, university students reserve their judgment and they didn’t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ir writing and speaking. Guessing is a judgment for a propositions, the guessing without the judgment should not do. If a student dose not want to judge, they are onlooker in academic writing. Such a tendency is shown wheth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or in regional blocks, and this trend shows no sign of abating.

Therefore, I presented a teaching method of a three-step process. It goes as follows: 1)the grammatical nature that ‘~wa(와)’ can not come to complementary words, 2)the argument of judgment is absent, and 3)it is gathered in the meaning of ‘truth’ in the semantic aspect.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ed that the students have to deep thinking on writing. It is the essence of a writing education.

Key words : gatta(to be same), conjecture sentence, (ra)go saenggakhada, writing, writing education, teaching method, deep thinking.

이 논문은 2017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